

메시지 6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경: 요 1:1, 3-5, 14, 16-18, 29, 32, 42, 51

I.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고, 이 서문의 주된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 곧 비밀스러우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시라는 것이다 — 요 1:1.

A.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분, 곧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 출 3:14-15, 요 8:24, 28, 58, 히 7:3.

B. 요한복음 1장은 영원의 두 부분과 시간의 다리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섯 가지 일, 곧 창조와 육체 되심과 구속과 기름부음과 건축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 준다 — 비교 시 90:1-2, 미 5:2.

1. 요한복음 전체의 서언인 요한복음 1장은 ‘여행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역사의 요약이다. 삼일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말씀이셨고, 최종적으로 영원 미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되신다 — 요 1:1, 4-5, 51.

2. 요한복음 1장은 영원하신 말씀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시간의 다리를 여행하시면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시고,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영이 되시며, 궁극적으로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신부와 완전히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심으로써 최종적인 벤엘,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되시는 것을 결정화된 방식으로 보여 준다.

C.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이 다섯 가지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1) 창조를 이루신 창조주로서, (2) 육체 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람으로서, (3) 구속을 이루신 어린양으로서, (4) 변화를 이루시는 기름 부으시는 영으로서, (5)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땅을 하늘에 연결하시는 사다리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의하시고 설명하시며 표현하신다 — 비교 요 1:1, 10:35, 엡 6:17, 요 6:63.

II.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3.

A.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 창공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네. / 낮은 낮에게 말을 쏟아 내고 /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네. / 말이 없고 이야기가 없으며 / 그 소리도 들리지 않으나” — 시 19:1-3.

B.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 롬 1:20.

C.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와 17장 24절부터 29절까지에 언급된 말씀은 그리스도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있다 — 비교 히 11:3, 1:2, 골 1:15-17, 학 2:7.

Ⅲ.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14.

- A. 말씀은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장막이 되셨다. 이 장막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 1.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한다 — 요 1:17.
 - 2.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 요 1:16.
- B. 그분은 육체가 되심으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시어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을 사람이 접촉하고 만지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셨다.
- C. 그분은 하나님-사람이 되심으로,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신성을 인성과 연합되게 하셨다.
- D. 하나님의 독생자의 육체 되심은 또한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18.
 - 1.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시고 설명되시고 정의되신 하나님이다.
 - 2. 생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배되신 하나님이다.
 - 3. 빛은 사람이 빛 비춤을 받아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비추시는 하나님이다.
 - 4. 은혜는 사람이 그분의 풍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누림이 되신 하나님이다.
 - 5. 실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실재화되신 하나님이다.

Ⅳ.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29, 36.

- A.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어린양이 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에 따른 절차인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으로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 B.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구약의 모든 제물의 성취가 되신, 육체 안에 계신 말씀을 상징한다 — 히 10:5-10.
 - 1. 그리스도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요제물, 거제물, 전제물의 실재이시다.
 - 2. 모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얻으며, 이 구속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다.

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돌들로 변화시켜(요 1:32-42) 신약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집(벧엘, 51절)을 건축하시기 위해 기름 부으시는 영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A.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영이 되심으로(고전 15:45), 더 전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유익적으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B.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 안에 기름 부으시는 영으로서 계신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 요일 2:20, 27.

1.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분으로서 기름 붓는 분과 기름바름이 되신다.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 사는 것은 ‘적-기름바름(anti-anointing)’이 되는 것이다(‘적(anti)’은 ‘반대하는’, ‘대신하거나 대치하는’을 의미한다) — 요일 2:18, 22, 4:3, 요이 7.
2.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다른 무언가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이다.
3.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성품에 속한 무언가로 그리스도를 대치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 자신을 대치하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 비교 빌 1:21, 4:4-9.
4. 우리는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천연적인 관념들이 내적 기름바름이신 그리스도를 대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일상생활을 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기름바름을 거스르는 것, 곧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적시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5.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적시시는 것인 기름바름 안에서, 기름바름과 함께, 기름바름을 통해, 기름바름에 의해 살고 행하기 원합니다.”

C. 비둘기 곧 기름 부으시는 영은 창조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타고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타고난 사람을 변화시키심으로 살아 있는 돌들이 되게 하시며, 변화된 사람을 연결하신다.

D. 베드로가 회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돌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요 1:42),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은 더 전진하여 그분께서 반석 곧 돌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셨다(마 16:16-18). 이 두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라는 것에 인상을 받았다(벧전 2:4-8).

Ⅶ.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하늘(하나님)을 땅(사람)에 이끌어 오고 땅(사람)과 하늘(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51, 창 28:11-22.

A. 베엘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받고 변화된 그분의 선민으로 구성된 집을 이 땅에서 얻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러한 집을 얻으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땅에 이끌어 오시고 땅을 하늘과 연결하심으로 이 돌을 영원히 하나로 만드신다.

B. 야곱의 꿈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그것은 야곱이 베엘 곧 하나님의 집에서 본 사다리의 실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 창 28:12, 요 1:51.

1.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의 거듭난 영(엡 2:22)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계시는 기반이다(딤후 4:22).
2. 하늘의 문인,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처소인 베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사다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3.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신 그리스도께서 산출하신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 곧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벤엘이며, 이 사다리의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다.
- C.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건축물이 필요하다. 이 건축물은 그분께서 이 땅을 취하시도록 하는 디딤돌, 교두보일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의 연합일 것이다. ... 이 건축물에 의해 야곱의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건축물은 시간의 다리를 끝내고 축복된 영원 미래를 이끌어 올 것이다. 우리는 이 건축물을 위해 있어야 하고, 이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5, 92쪽)